

부처님오신날 특집

해외석학 인터넷 대담

# “현대과학의 한계 극복 인류행복 새 지평 열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 사회에 불교는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본지가 운영하는 부다피아 인터넷을 통해 일본 도요기쿠엔 대학에서 동아시아 종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찰스 물러 박사와의 본지 최정희 편집국장이 대담했다.

(편집자주)

## 불교 인터넷 대담

—박사님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몇 안되는 학자중의 한분이신데 한국불교학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부한 불교의 전통과 유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종교학자 중 한국불교학을 전공한 학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말해주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 서구 종교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불교에 갖는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조만간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인류 지성사 이끌어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불교학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사용한 저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불교학자·포교사들이 ‘한국불교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국제종교학회의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 호기심을 갖는 외국 종교학자를 멀리 쫓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세계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종교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와 생활이 크게 영향받고 심지어 전쟁도 종교적 원인으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인류역사에 있어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불교가 동아시아를 비롯 세계 속에 대중화된 종교로 확산되어 인류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불교가 인류 역사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한계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헌을 꼽자

면 인류의 고통·이기성·결집 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종교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불교가 제시한 방법은 그동안 다각도로 행해졌는데, 인류를 정화시키는데 있어 타종교에 비해 일등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불교는 인류 철학·지성사의 눈부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토대로 예술·문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창조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동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중국의 당(唐), 송(宋), 한국의 신라, 일본의 나라(奈良) 등이 불교의 사상에 더욱 고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에 이르러 불교의 영향을 받아 철학·지성·예술·문학 등의 분야

## 물러교수가 보는 「21세기 불교연말」



◇미국출생인 찰스 물러는 뉴욕주립대학에서 한국학(불교)을 수학하고 1993년 조선시대 기하스님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일본의 도요기쿠엔 대학에서 종교철학 조교수로 재직중인 물러교수는 <원각경(圓覺經) 영역본> 등을 비롯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다. 이러한 동·서양의 불자 분포 차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불교가 서구에 전래될 당시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하는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수준이 낮은

는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났으며,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에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불교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서구문명의 정신적 불균형이 ‘허무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많은 대학생들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보다는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에게 불교가 정직한 종교로서 비쳐졌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비판하는 불교의 특성이 ‘과학적 물질주의’에게 난해했던 문제를 유연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사회참여의 적절한 조율’은 현대의 불교가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행과 사회참여의 두 방향이 안고 있는 장·단점과 두 방향의 조율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는 현대과학과 갈등을 초래



◇본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에 개설된 대담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최정희 편집국장(사진 왼쪽 끝)이 찰스물러교수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부다피아대담 홈페이지 주소>: http://www.budhappia.co.kr/sym/

대담 : 최정희 편집국장  
정리 : 오종욱 기자  
기술 지원 : 황성록 전략정보시스템장

하지 않는 주요 종교로 균형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순전히 분석적 기술에 의존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항상 단상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과학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간은 타인과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현대과학의 분석력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통합적인 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통합적인 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가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갖는 우주적인 인간으로 자신을 보도록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불교가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모든 객체의 연관성’을 천명했던 것과 같이 현대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인류의 터전인 우주가 거대한 연결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현대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비판주의가 광배해진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확고한 체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문에 21세기의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물질과 정신통합 바탕 인간성 회복 지향 ‘허무감 극복’ 서구 젊은지성 불교에 매료

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티베트·인도·스리랑카·버마·베트남·대만·한국·일본 등지에서 승려들이 대거 들어와 선원을 열고 서구인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양 승려가 직접 가르친 불교전통이 대학과 학계에 큰 관심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불교의 서구화’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철학, 종교적 의식행사, 서양철학·자연과학을 통한 불교 연구가 그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 들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불교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은 불교의 속성인 ‘유연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경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교장외에 학생 물러

개인적으로 저는 불교가 서구에 전래된지 고작 백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문화에 적용해 나가는 불교의 중요한 변화를 더욱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불자 분포를 놓고 볼 때, 서양의 경우 지식인 중심의 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

계층의 사람들 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만 조심스러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천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는 이미 문화 내면에 여러 형태로 변형돼 다양한 계층, 교육수준의 사람들까지 접근하기 쉬운 종교였습니다.

그 후 서양에서 동양종교로서 불교의 대중성은 대학가에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의 허무주의·물질주의 등에 저항하고 과학·기술 등에 의해 분석된 냉철한 사실보다는 인간 영혼의 근저를 찾기 위한 젊은 지식인의 노력으로 획득되었습니다. 종교학으로서 불교를 수강신청하

# 부처님도 확장(茶毘) 하셨습니다!!

삼국통일의 주역 문무왕, 현대 한국불교의 큰 별 성철 큰스님 등 역대 고승대덕과 수많은 위인들도 모두 확장하였습니다.

### 공원형 남골당 (영묘전) 탄생!!

일본 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호텔과 궁전식을 조화한 영묘전 (남골당)에 귀중한 분의 영골을 봉안해 드립니다.

### 청개구리는 냇가에 어머니의 묘를 쓰고 비가오면 슬피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묘가 비에 떠내려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묘소가 유실되는 일이 허다 합니다. 묘소가 유실되면 영령은 안주처를 잃고 육신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해 중음신으로 구천을 떠돌니다. 화장하여 사할 남골당에 봉안하면 육신은 화염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령은 천도염물로 극락정토의 길을 찾아가십니다. 조상님의 영령을 부처님나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것, 후손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 영묘전 회원모집

- 개인단 최고급 도자기의 남골기와 원목 전통공예 나전칠기로 제작된 남골함에 소중한 분을 봉안합니다.
- 부부단 불상과 제단이 설치되고 영령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으며, 부부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극락으로 천도됩니다.
- 가족단 불상, 제단, 유골보관함들을 설치하고 3대가 영원히 봉안되므로 우리 고유의 조상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 법인 **영각사 극락 영묘전**  
TEL: 0345)498-7700~2 / FAX: 0345)498-7703

사업본부 **JHC 지호실업(주)**  
TEL: (대)02-3443-2788, 7270 / FAX: 02-3443-2787

영각사 영묘전의 4가지 특징

## 價

명함을 찾기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 利

기초의 정의의 문제점을 감안 토발 서비스함으로 회원분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信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조상의 묘를 언제든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 安

한번 회원가입후 천재지변 등 외에 손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직정릉 우백호의 명당, 서해 제일의 영산 군자봉

서해 제일의 영산 군자봉 영각사 극락영묘전 조감도